

3.1운동 중심의 인사동 역사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Insadong History Experience Program Activation Measures of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f 1919

최인담, 주진오*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학과,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Choi, In-dam, Chu Chin-oh*

Sangmyung Univ.

요약

인사동은 전통문화의 거리로 알려졌으나 관광상품 위주의 일시적 개발이 진행되어 역사적 장소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았다. '3.1운동' 유적지를 중심으로 한 역사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인사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3.1운동의 발생지로서 인사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찾고 공간과 학습이 결합한 역사적 공간으로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I. 인사동의 역사성

인사동은 한국의 화랑, 표구방, 필방 등 고전미술 상점과 전통공예품 상점 및 전통음식점이 있는 전통문화 거리로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도화원(圖書院)을 중심으로 미술도구가 거래되면서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1900년대 이후 고미술품 및 골동품 거리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문화 예술의 거리로서 화랑 및 문화산업 공간으로 인사동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으나, 근대사회 이후 정치적 공간이자 역사적 공간이라는 점은 부각되지 않았다.[1]

3.1운동의 발생지로서 인사동의 장소성은 크게 강조되지 않았으며 관광 중심의 거리 개발에 밀려 소외되었다. 또한 현재 인사동은 과거의 정체성과 거리가 있는 외식업이 성행하고 대기업 계열 체인점의 입주가 늘어나면서 획일화 된 변화가 되어 전통문화의 거리라는 정체성이 모호해졌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3.1운동이 발생지라는 장소성을 살려 역사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목해야 한다.

II. 인사동의 3.1운동 유적지

인사동의 독립운동 유적지는 1905년 을미조약의 체결부터 3.1운동의 과정을 담은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며 충정공 민영환 선생 자결터, 승동교회, 태화빌딩 내부의 민족대표 33인 기록화, 천도교중앙대교당, 탑골공원이 그 거점이다.

먼저 충정공 민영환 선생은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이 강제되어 이루어지자 이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자 국민, 외교사절, 황제에게 보내는 유서 3통을 남긴 후 자결하였다. 그 후 피묻은 옷과 칼을 상청(喪廳) 마루방에 걸어두었는데 그 밑에서 대나무 줄기가 올라와서 사람들은 그의 충정이 혈죽(血竹)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 자결터는 민영환 선생의 청지기의 집으로 알려졌으며 관훈동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사적비가 세워졌으나 지나치기 쉬운 단점이 있다.

승동교회는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130호로 지정되었으며, 1893년에 설립된 곤당골 교회에서 출발하였다. 승동교회는 당시 조선 신분제도의 최하층민이었던 백정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하였기에 백정교회로 알려졌다. 승동교회는 3.1운동 때 학생회장 김원벽의 주도로 학생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학생들이 승동교회 지하에서 유인물을 인쇄하고 탑골공원으로 합류할 것을 도모했다. 승동교회가 기독교 중심의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장소라면 천도교중앙대교당은 민족종교인 천도교 중심의 독립운동을 상징한다. 천도교중앙대교당은 서울시유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1921년에 준공되었다. 천도교중앙대교당의 공사비 일부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도교 3대교조인 손병희는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다.

다음으로 태화빌딩 내부의 민족대표 33인 기록화를 들 수 있다. 태화관은 3.1운동 때 민족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곳이다. 원래 인사동에 있던 요릿집으로 명월관(明月館)의 별관이었다가 태화관으로 개칭했다. 민족대표 33인은 이곳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낭독하였다. 지금 태화관 자리에는 태화빌딩이 들어섰고 건물 1층에는 당시 민족대표 33인 기록화가 있다. 실내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3.1운동의 흐름과 민족대표의

독립운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록화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밀하게 그린 것으로 사진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이 그림에서 민족대표는 29인으로, 33인이 모두 자리한 것이 아니고 그 중 일부는 해외 및 지방으로 파견되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대표 33인은 3.1일 독립운동의 거사일을 3월 1일 오후 2시로 하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여 독립을 선언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원에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일제의 강력한 진압에 민간의 희생을 고려하여 태화관에 모였던 것이다.

탑골공원은 인사동 초입에 위치한 곳으로 1919년 3·1운동이 직접적으로 벌어졌던 무대이다. 원래 고려시대 흥복사가 있던 자리에 1465년에 원각사라는 절이 세워졌으나 연산군 때 폐사되었으나 고종 34년에 근대적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1920년 '과고다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하였으나 1992년 옛 지명을 따 탑골공원으로 개칭하였다. 바로 이 장소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거국적인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3·1운동 직전 국내의 독립운동은 비밀결사의 지하운동이나 개별운동으로 나타났으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힘입어 거족적 운동으로 폭발하였다. 인사동에서는 3.1운동의 조직, 과정, 결과를 보여주는 장소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 그림 1. 태화빌딩내 민족대표33인 기록화

Ⅲ. 장소성을 살린 역사체험프로그램 개발

인사동은 조선시대 때도 정치의 중심지이며 관공서가 밀집한 정치적 공간으로 기능했다.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정할 당시 중심으로 삼았던 서울중심표지석, 조선시대 대학자인 이율곡 선생의 집터가 있으며 갑신정변이 발발한 우정총국과 안동별궁터도 인접해 있다. 이를 연계한다면 보다 폭넓은 역사체험의 장으로 인사동을 활성화 수 있다.

현재 인사동에는 사설 교육기관 중심의 역사문화체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초등학교 중심의 단체 역사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성인 대상의 역사체험프로그램은 현재 1개 기관이 진행 중이나 역사체험과 문화체험, 관광이 혼합한 형태로 장소 마케팅을 통해 개인의 재방문이 높

여야 하는 상황이다.[2] 현장학습을 통한 역사체험프로그램은 단체중심의 교육 방식이 개별화 전략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개인 중심의 역사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관심도와 집중력이 향상되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성인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은 가족 단위, 회사 단위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재방문의 가능성도 높으리라 기대된다. 개별화 된 역사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장소의 역사성을 살리고 뚜렷한 주제가 제시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인사동이 특정 공간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는 낙원동(樂園洞), 서쪽으로는 공평동(公平洞)과 남쪽으로는 종로2가, 적선동(積善洞), 북쪽으로는 관훈동(寬勳洞)과 접해 있는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해설가를 두어 운영하기 어렵다. 또한 인사동의 3.1운동 유적지는 개인이 정보를 취득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 중심거리에 인접해 있으나 다소 좁고 복잡한 골목으로 들어서야 하며 민족대표33인 기록화와 같은 경우 현재 태화빌딩 내부에 있는데 외부인도 출입 가능하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먼저 유적지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넓은 공간을 관통할 수 있는 테마로 3.1운동을 중심으로 한다면 인사동의 역사성과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와 같은 시기적 특성을 살려 인사동이 3.1운동의 중심지로서 주목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시기에 앞서 인사동의 역사적 장소를 점검하고 교육 환경을 새로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공간과 주제를 결합한 인사동의 3.1운동 중심 역사체험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전략을 같이 한다.

인사동은 관광지로서 인지도 높은 공간이지만 중심거리를 제외하고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역사적 장소들이 분포하고 있다. 을사조약에 반대한 충정공 민영환 선생의 자결터, 학생 중심의 독립운동을 전개한 승동교회, 태화빌딩 내부의 민족대표 33인 기록화, 3.1운동의 무대인 탑골공원, 독립운동에서 종교인의 역할을 보여주는 천도교중앙대교당을 연결한다면 한국 독립운동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이 밀도 높은 역사의 현장으로 인사동의 가치를 살리고 3.1운동이라는 주제를 명확히 나타내는 역사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는 적기이다.

[1] 김승유, “‘전통문화’의 상징적 공간, ‘인사동’의 역사성 재고”, 중앙민속학 제16권, p.25, 2011.

[2] 은연정, 김시중, “인사동문화지구의 장소마케팅이 방문객 만족 및 재방문의사에 미치는 영향”, 국토지리학회지 제44호 3권, pp.422-423, 2010.